

MEK · IPA 등 용제 국산화 차질

유공 · 럭키, 세계적 공급과잉 및 일본 덤핑공세로 사업 중단 · 연기

MEK · IPA 등 용제 국산화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MEK(Methyl Ethyl Ketone)는 유공, IPA(Isopropyl Alcohol)는 럭키가 2~3년전 기술도입 등 사업준비를 완료, 국산화 작업을 진행중이었으나, 투자비 증가 및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 또는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EK는 지난 89년 유공(대표 김항덕)이 MTBE제조시 생성되는 Raff-III를 처리하기 위해 Deutsche Texaco의 직접수소화법 기술을 도입, 이미 기술료를 지불한 상태이나 경제성 및 기술상 문제로 사업진행을 전면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공은 당초 총 350억원을 투자, 완공 시기를 92년으로 계획했으나, 투자비가 700억~8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MEK 가격이 바닥세를 보이자 완공시기를 95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MEK가격은 톤당 550~600달러선으로 유공이 MEK사업을 검토할 당시에는 1100달러선이었고, 88년 3월 2000달러선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국내 MEK 용도별 수급현황

(단위:톤, %, ▽는 감소)

구 분	1988	1989	1990		1991	
	수량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 입	39,950	45,700	59,700	30.6	54,900	▽8.0
내 수	39,850	45,700	59,500	30.2	54,900	▽7.7
수 출	100	5	134	2,580.0	5	▽96.3
과 부족	39,850	45,700	59,500	—	54,900	—

그러나 이 가격은 지난해 톤당 450달러로 바닥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약간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가격이 하락한 것은 세계적으로 91년기준 29만7000여톤의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생산능력이 20만여톤인데 반해 수요는 10만6000톤으로 9만4000여톤의 공급과잉 양상을 보여, 국내 수요 5만여톤 시장을 놓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 생산기업들이 국내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Idemitsu, Maruzen 등은 Shell, Exxon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내 가격은 톤당 1100~12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에서는 연간 2만5000톤 정도를 550~600달러에 판매, 국내기업의 MEK 국산화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유공은 물론 오랫동안 MEK 기술도입을 추진해온 럭키를 비롯 대림산업,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이 이 사업참여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91년 현재 MEK 수요는 5만4900톤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본 등이 덤핑으로 국내시장 과점을 꾀하고 있어 국산화가 조기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도별 수요는 비디오테이프 22%, 접착제 18%, 잉크·도료 12%, 플라스틱 8%, 합성피혁 6%, 폴리우레탄 13%, 기타 16% 사용되고 있다.

한편, IPA는 90년말 럭키(대표 최근선)가 독일 Shulz와 기술제휴, 91년 후반까지 3만톤 규모의 IPA 공장을 전남 나주에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진행이 진척되지 못하다 올해부터 공사에 착수, 11월 현재 70%의 공정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93년 4월 기계적 완공에 이어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럭키는 기존의 Isobutyl Alcohol 및 Normal Butyl Alcohol 등 Latent계 용제를 생산한데 이어 사업강화를 위해 IPA사업을 추진중이었으나, 최근 원료인 프로필렌 가격보다 Shell등의 IPA 수입가격이 더 낮아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진행을 연기했었다.

한편, 유공도 Edeleanu Gesellschaft의 기술을 도입, 3만톤 규모의 IPA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IPA 국내수요는 3만여톤으로 도료·잉크에 45%, 계면활성제 3%, 의약·농약 19%, 테이프 16%, 섬유바인더 및 기타 부문에 17% 사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1/15>